

고전특수



먼저 읽은 현직 교사들의 강력 추천!
아주 새로운 청소년 민주시민 교양 시리즈, 고전툰!
읽어보세요! 자신 있게 20% 무료 공개합니다!

- ③ 환경(근간)
- ④ 문화(근간)
- ⑤ 역사(근간)

고전툰

강일우·김경윤·송원석 지음



판크
클

책머리에_왜 고전론인가? _ 6

애덤 스미스 『국부론』 _ 11

카를 마르크스 『자본론』 _ 57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_ 113

소스타인 베블런 『유한계급론』 _ 163

박제가 『북학의』 _ 207

추천의말_고전론, 꼭 읽어보세요! _ 250



왜 고전تون인가?

AI 시대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도 시시각각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문명의 큰 변화 속에서도 인간의 고민과 갈등, 욕망과 희망은 놀랄 만큼 비슷한 모습으로 되풀이됩니다.

그동안의 청소년 대상 교양도서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쉽게 읽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식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쓰고,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과 설명 자료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인문·사회·과학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청년들이나 성인들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AI 시대에 이런 방식의 지식 전달만으로 충분한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복잡하고 낯선 현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힘과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지혜이지 않을까요?

고전톤 시리즈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고전톤은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성과 세상의 흐름을 함께 느끼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단순히 유명하다는 이유로 고전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책을,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진짜로 말을 걸 수 있는 책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고전톤은 지식을 외우라고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고전톤을 읽으며 수많은 질문과 다양한 관점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생각이 자라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인간이 왜 서로 다투고, 어떻게 공존을 배우며, 어떤 사회를 꿈꿔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깊어지고,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싶은 마음의 싹이 자라날 겁니다.

한 권의 고전을 네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히스토리

고전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책이 쓰인 시대 배경과 저자의 삶

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저자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맥락, 당대의 사회문제, 그것에 대한 저자의 시선과 대응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고전이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쓰였는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이제스트

고전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쳐 살아남은 ‘책 중의 책’입니다.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읽히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제스트는 고전이 품고 있는 핵심 메시지와 인류가 그 책에서 길어 올렸던 통찰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고전툰

아무리 훌륭한 고전이라도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읽히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멈추게 됩니다. 고전툰은 고전의 핵심 내용을 툰 형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오늘의 독자들이 고전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습니다.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고전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줍니다.

북토크

고전툰 시리즈를 만들면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코너입니다. 북토크의 타이틀은 ‘지혜의 광장’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광장)는 지혜를 서로 나누고 경합하는 민주주의의 산실이었습니다. ‘지혜의 광장’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빛나는 책의 저자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지성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만나 대화를 나누는 가상의 북토크 무대입니다.

‘지혜의 광장’에 등장하는 참여자들의 얘기는 ‘역사 속 사상가들의 저서와 사상을 충실히 참조하여, 그들의 주장을 오늘날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가상의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인물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의 사상이 요약·정리된 대화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형식은 ‘역사적 인물의 사상을 마음대로 각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광장’은 단순한 상상이나 재미에 기대지 않습니다. 각 인물의 발언은 실제 저술과 시대적 맥락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의미가 왜곡되거나 단순화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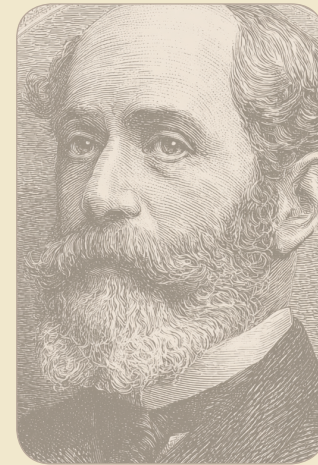
‘지혜의 광장’은 정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상을 전달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품위 있게 토론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위대한 지성들의 생각을 생생한 대화로 접하며 독자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며, 토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의 장입니다.

고전은 우리 모습을 비출 수 있는 지혜의 거울과 같습니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그 지혜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모쪼록 고전툰 시리즈가 독자들과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교양과 토론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일우 · 김경윤 · 송원석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만약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청년이 평생 돈을 벌어도 집 한 채를 살 수 없다면 어떨까요? 노동으로 번 돈보다 토지나 자산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훨씬 많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면 어떨까요? 사회가 진보할수록 오히려 다수의 삶은 더 가난해진다면 대체 그런 진보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평생을 바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빈곤이 심화되는 원인을 토지 소유의 불평등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사회 전체의 부를 키울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경제학자이자 사회 개혁가로 진보와 빈곤의 모순에 가장 치열하게 맞섰던 헨리 조지를 만나봅시다.



토지의 이익을 모두에게

헨리 조지, 당신은 누구?

“진보와 빈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수수께끼이다. 발전될수록 빈곤은 더 깊어지고, 더 넓게 퍼지며,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진보와 빈곤』은 19세기 말 전 세계를 뒤흔든 경제학책입니다. 출간 직후 미국에서 수십만 부가 팔렸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왜 사회가 진보할수록 빈곤이 심화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는 산업화 시대 대중의 현실적 고민을 정확히 짚어내서,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함께 가장 널리 읽힌 경제학책이 된 것이지요.

모든 세금을 없애고 토지세 하나로 대체하는 단일세(Single Tax)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의 급진적 아이디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상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평범한 청년의 절망적 체험과 19세기 미국의 급속한 산업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헨리 조지는 183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회 신자에서 웨이커교도로 개종한 독실한 종교인이었고, 어머니는 스코틀랜드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조지 가족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강한 종교적 신념과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웨이커교도였던 부모는 자녀들에게 검소함과 정직함,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르쳤습니다. 웨이커교는 노예제 반대, 여성의 권리 신장, 평화주의 등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사회개혁운동을 주도하고 있었고, 이런 환경은 어린 그의 사회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지는 10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고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을 보면 자신이 가진 동전을 나누어주곤 했습니다.



19세기 뉴욕의 뒷골목 모습.

“왜 어떤 사람은 호화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해야 하지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른들의 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니 받아들이야 한다.”

그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식

적인 교육보다는 실제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는 14세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지 않았지만, 부모는 아들의 결정을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6세 때 조지는 상선의 선원이 되어 인도와 호주를 오가는 항해에 나섰습니다. 그에게 바다에서 보낸 1년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인생을 뒤흔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화려한 궁전

과 극심한 빈곤이 나란히 존재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호주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미개척지를 보며 ‘왜 이렇게 넓은 땅이 몇몇 사람의 소유로 묶여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가 ‘토지와 빈부격차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3년 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샌프란시스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황금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금을 캐는 대신 인쇄소 식자공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생활은 그가 꿈꾸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골드러시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특히 토지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부를 꿈꾸고 온 이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금을 차지한 건 극히 일부 소수였고, 대부분은 비싼 땅값과 생활비 때문에 오히려 더 가난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광부들과 농부들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만 소유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은 그 땅 소유자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발전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 이익을 혼자 가져가는가?’

이런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861년 그는 결혼했지만, 생활은 극도로 궁핍했습니다. 식자 공 일은 불규칙했고, 하루 벌이가 끊기면 며칠씩 굶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가난은 단순한 경제적 곤란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에게 가난의 실체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신문기자로 일하게 되면서 캘리포니아의 경제 현실을 더욱 깊게 관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침 대륙횡단철도 건설이 진행되면서 미국 서부의 경제 지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진보의 빛나는 풍경이 아니라, 부의 편중과 불평등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토지가 소수 철도회사와 투기 세력에게 무상으로 넘어갔고, 이들은 단지 땅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땅값 폭등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많은 서민들은 더 비싸진 땅값과 생활비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로서 이 불의한 현실을 신문에 고발했습니다.

‘철도 건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혜택을 왜 소수의 토지 소유자들만 독차지하는가?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그의 글은 대중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적에 공감했고, 토지 문제를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강력한 기득권층의 분노를 샀습니다. 철도회사와 토지 소유자들의 압력으로 그는 종종 해고 위기에 몰렸고, 언론계에서조차 외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1868년 조지는 뉴욕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뉴욕은 남북전쟁 이후 미국 자본주의가 급격히 성장하던 현장이었습니다. 맨해튼 곳곳에는 고층 건물이 솟아올랐고, 증기기관의 굉음과 함께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몰려든 이민자들과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이들로 거리는 북적였고, 도시는 전에 없던 활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함의 이면은 달랐습니다. 번쩍이는 저택과 상점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는 가난에 짓눌린 빈민가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헐벗은 채 거리에서 구걸했고, 좁은 셋방에는 수많은 가족이 몰려 살았습니다. 부와 빈곤의 대비가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도시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 거리를 마차를 타고 지나가던 그는 문득 마부에

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 땅값은 얼마나 합니까?”

마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한 천 달러쯤 하지요.”

그 순간 조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천 달러라니! 그것은 당시 평범한 노동자가 2년 넘게 꼬박 일해도 벌기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빈곤의 뿌리는 토지의 사적 소유에 있다.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닌 땅이, 소수의 소유로 묶여 있는 한 진보는 빈곤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 경험은 그의 생각을 한층 더 굳건히 했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번영과 그 그늘에 드리운 참혹한 빈곤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 정의도, 진정한 진보도 불가능하다는 확신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조지는 본격적으로 경제학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글을 쓰고, 밤에는 책을 파고드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등 고전 경제학자들의 책을 열심히 읽으며, 기존 경제학의 이론과 현실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특히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리카도의 ‘지대론’이었습니다. 리카도는 토지의 지대가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 따라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비옥한 땅은 더 많은 수확을 보장하므로, 자연스럽게 더 높은 지대를 형성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헨리 조지는 리카도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대는 땅주인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발전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이 발달하며, 상업과 산업이 성장할수록 토지의 가치는 저절로 올라간다. 그런데 그 상승분은 누구의 몫인가? 그것은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가치다. 그런데 왜 특정 개인이 독차지하는가?’

조지는 이 가치를 불로소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생산 활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토지를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얻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는 이 불로소득을 개인이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1871년 조지는 『우리의 토지와 토지 정책』이라는 소책자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단일세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다른 모든 세금은 폐지하자.’

그의 주장은 과감했습니다. 토지세 하나만으로도 정부 재정을 충당할 수 있고, 동시에 투기를 억제하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책자는 그다지 큰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철도 건설과 산업 성장의 열기에 휩싸여 있었고, 토지세 하나로 모든 세금을 대체 한다는 발상은 너무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편적인 주장만으로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책을 써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보와 빈곤』 집필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땅값은 오른다. 이 증가분은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가치인데, 땅주인이 독차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다. 따라서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사회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그는 이를 위해 토지세를 대폭 인상하고 다른 세금은 모두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세금 대신,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만 과세하면 정의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879년 출간된 『진보와 빈곤』은 경제학계와 사회 전반에 폭발

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물론 영국과 유럽 전역으로 번역·소개되며 1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학술서로서는 전례가 없는 판매량이었고, 경제학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헨리 조지는 단숨에 세계적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연단에 서는 곳마다 수천, 수만의 청중이 몰려 들었고, 그의 연설은 언론에 대서 특필되었습니다. 특히 영국과 아일랜드 강연 여행은 그의 명성을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런던에서는 대형 극장이 청중으로 가득 찼고, 아일랜드에서는 영국 지주들의 토지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그를 구세주처럼 맞이했습니다.

‘토지는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공동의 유산입니다!’

그의 연설은 아일랜드 농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고, 환호와 눈물 속에서 거대한 민중 집회와도 같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 헨리 조지.

그의 사상은 곧바로 ‘조지주의(Georgism)’라 불리는 세계적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단일세 운동’이라고 불린 이 운동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식인과 정치가, 개혁운동가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조지의 주장을 사회 정의의 해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는 그의 사상이 제도로 구현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그의 영향을 받은 정치가들이 토지세를 대폭 인상했고, 이는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도시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덴마크에서도 농지에 대한 토지세가 강화되어 대농장이 분할되고, 소농들이 땅을 가질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덴마크 농업 구조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에서도 토지세 개혁이 도입되었고, 이는 공공재정 확충과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쑨원(孫文)이 조지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쑨원의 삼민주의 가운데 민생주의는 바로 조지의 토지 사상에서 큰 영감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쑨원은 ‘토지의 가치가 사회 발전에 따라 오르면, 그 증가분은 국가가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톨스토이가 『진보와 빈곤』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헨리 조지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토지는 하느님의 것이므로 개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조지의 주장에 깊이 공감했고, 자신의 사상 속에서도 토지 사유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도 헨리 조지의 사상에서 깊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토지의 사적 독점이 빈곤의 근본 원인이라는 그의 주장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더욱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농민 다수는 일본인 지주나 그들과 결탁한 일부 대지주에게서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수확의 절반 이상을 지대로 바쳐야 했습니다. 일본인 지주의 토지 수탈은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민중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가혹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조지가 강조한 ‘토지는 민중 전체의 공동 자산’이라는 사상은 조선의 독립운동가와 지식인들에게 더욱 절실하고 강렬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안창호는 현지에서 활발하던 조지주의 운동과 사상적 흐름을 접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독립만으로는 민족의 해방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경제적 불평등, 특히 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중의 빈곤은 계속될 것이라 확신했

습니다. 그래서 농민과 서민이 정당하게 땅을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구상하며, 토지 문제 해결 없는 독립은 반쪽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운형 역시 토지 불평등을 사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보았습니다. 해방 후 그는 토지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군정과 좌우 합작 논의 과정에서도 토지 문제 해결 없이는 새로운 사회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사상적 뿌리는 사회주의·민족주의에 있었지만, 토지 독점이 불평등의 뿌리라는 문제의식은 조지의 통찰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단순한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해방 후 어떤 사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자극한 하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해방 이후 1950년대 농지개혁 논의로도 이어졌습니다.

1886년 조지는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기존 정당의 지원 없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노동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기존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1897년 그는 다시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선거를 불과 며

칠 앞두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58세였습니다.

조지의 장례식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노동자·농민·지식인·정치가들이 모두 모여 이 위대한 개혁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헨리 조지의 죽음으로 단일세 운동은 동력을 잃었지만, 그의 사상은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 들어 토지공개념, 개발이익 환수 등의 정책에서 그의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0여 년 전 캘리포니아의 한 신문기자가 서부 개척지에서 목격한 불평등의 현실을 분석하며 깨달은 통찰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빈곤』 핵심 쏙쏙!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토지 문제를 통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분석한 경제학책으로, 오늘날까지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토지세 하나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경제학책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는 시대를 초월한 고전입니다.

진보할수록 빈곤이 늘어나는 역설

19세기 미국은 산업혁명과 서부 개척으로 눈부신 진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륙횡단철도가 개통되고, 도시에는 고층 건물이 세워졌으며, 기술혁신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무한한 기회의 땅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빈민가와 실업자도 늘어났습니다. 철도가 건설되고 도시가 발달하며 기술이 진보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아질까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부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것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 때문이다’라고 분석한 조지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진보가 자동으로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해답을 토지제도에서 찾았습니다.

토지는 모든 부의 원천이다

경제학자들은 보통 생산의 3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로 구분하는데, 조지는 이 중에서 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동과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토지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자연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토지를 누가 소유하느냐가 부의 분배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노동이든 자본이든 그 출발점에는 반드시 토지가 필요합니다. 공장을 세우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집을 짓고 도로를 놓는 것도 모두 토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지를 누가 소유하느냐가 부의 분배와 사회적 불평등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소수가 토지를 독점하면 다수는 높은 지대와 임대료를 감당하느라 가난해지고, 토지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가 마련되면 부는 사회 전체에 더 고르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지대는 사회가 만든 불로소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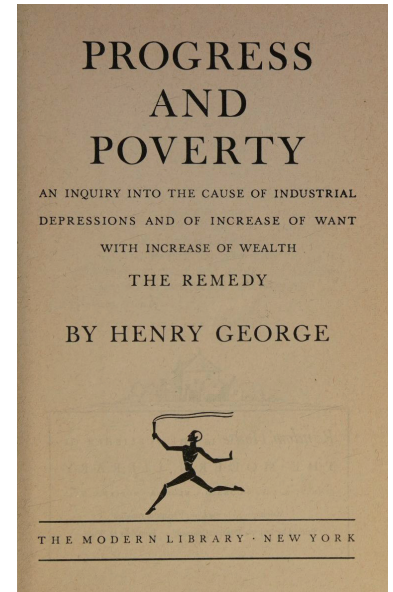
헨리 조지는 토지의 지대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땅값이 오르는 이유를 토지 소유자의 투자나 개량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지대는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사회 전체의 발전에서 비롯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확장되며, 도로와 철도가 건설되고, 상업이 활발해질수록 땅값은 저절로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공동체 전체가 만들어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이익이 온전히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이를 불로소득이라 규정했습니다.

토지 독점이 빈곤의 근본 원인이다

그는 빈곤의 근본 원인을 토지의 사적 독점에서 찾았습니다. 소수가 토지를 독점하면 다수는 토지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생존과 생산 활동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빌리고 지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의 불평등을 고착화합니다. 토지

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그 성과의 상당 부분을 땅주인에게 바쳐야 하므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토지 독점은 노예제도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자유인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에게 예속되어 살아갑니다.’



『진보와 빈곤』 초판본 1879.

토지는 하느님이 주신 공동 선물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 사유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간이 노동으로 생산한 것은 그 개인의 소유가 정당하지만,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자연의 산물인 토지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땅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터전입니다. 따라서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한 사적 재산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공동재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토지세는 정의롭고 효율적이다

그는 토지세가 단순히 정의로운 세금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세나 관세는 사람들의 노동과 생산, 그리고 소비 의욕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 일하려 해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더 많이 교역하려 해도 관세 장벽이 가로막기 때문이죠.

그러나 토지세는 다릅니다.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매겨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지세를 부과하면 땅을 놀려두기가 어려워져, 반드시 활용하거나 다른 이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는 투기를 억제하고 땅이 실제 생산과 생활을 위해 쓰이도록 유도하는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토지세는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을 장려하는 유일한 세금이다.’

자유무역과 토지 공유가 해답이다

헨리 조지는 시대의 주류였던 보호무역에 반대하고, 일관되게 자유무역을 지지했습니다. 관세가 겉보기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 부담을 지우고 소수의 산업 자본가만 이익을 본다고 분석하며, 관세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비판했

습니다.

그는 국가 재정을 관세나 소득세 같은 생산을 위축시키는 세금이 아니라, 토지세로 충당해야 하고, 무역을 자유롭게 개방해 전 세계가 교류한다면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유무역과 토지 독점의 폐지는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위대한 개혁의 두 부분이다. 이 둘이 결합될 때 비로소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

빈곤은 자연법칙이 아니다

맬서스(Thomas R. Malthus)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날 뿐이기 때문에 빈곤과 기근은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빈곤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잘못된 사회제도의 산물이라며 강력히 반박합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혁신으로 생산력은 충분히 확대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인류는 더 많은 식량과 재화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지만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생산물의 분배구조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토지 독점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회 전체의 몫을 가로채기 때문에 빈곤이 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가치 상승이 임금을 억압한다

임금이 왜 오르지 않는지도 설명합니다. 노동자의 생산성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 과실은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임금 상승분이 모두 지대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토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집세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니 명목상 임금이 오르더라도 실제 생활 수준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그 차익은 모두 토지 소유자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진보의 열매는 모두 지주가 가져가고, 노동자에게는 남는 게 없습니다.’

도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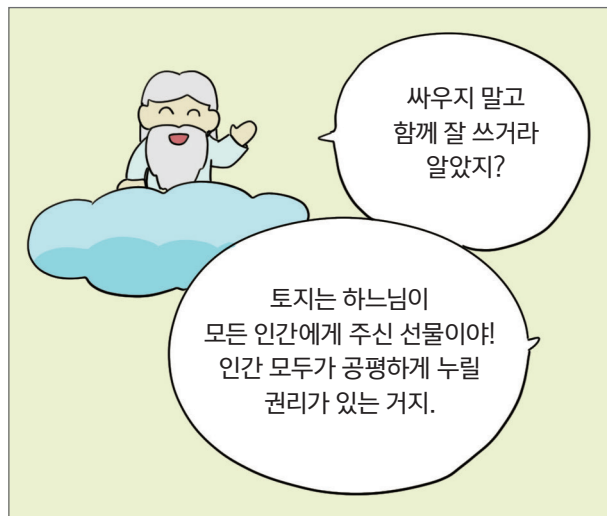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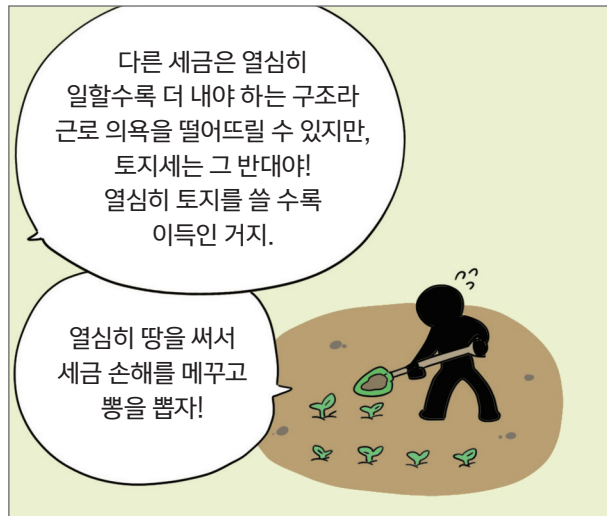
헨리 조지는 토지세가 단순히 재정 확보 수단을 넘어, 심각한 도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도심의 땅값이 치솟으면 서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나 긴 통근 시간과 교통비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세를 통해 지대를 사회가 환수하면 도심의 땅값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서민들도 직장 근처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토지 소유자들도 높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놀려두던 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매각해야 하므로, 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도시의 공동화와 슬럼 형성을 막고,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토지 단일세는 단순한 조세 개혁이 아니라 도시 계획과 사회 개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종합 처방전이었습니다.

고전론 토지세로
세상을 바꾸자!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토론자

조지 Henry George 1839~1897

페인 Thomas Paine 1737~1809

스펜서 Herbert Spencer 1820~1903

민주시민의 경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빛나는 책의 저자를 모시고 인류 역사의 쟁쟁한 지성들과 함께 토론하고 지혜를 나누는 ‘지혜의 광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아고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지 문제를 통해 사회 정의를 추구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중심으로,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페인 선생님은 미국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에 모두 깊이 관여한 정치사상가이자 행동가였습니다. 그는 혁명기의 뜨거운 현장에서 글과 연설로 민중을 고무하며 시대의 변화를 이끌

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권리』에서 세습적 특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몫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지 상속세의 형태로 환수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토지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분배하자는 매우 혁신적이고 시대를 앞선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허버트 스펜서 선생님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회사상가로, 사회진화론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그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며, 생물학적 진화 원리를 사회와 국가, 경제에 적용했습니다. 사회도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점차 발전한다고 보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를 진보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지만, 생물학적 논리를 단순히 사회에 옮겨온 점 때문에 비판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과학적 사고를 사회 이해에 접목한 중요한 사상가로 평가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아고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범한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내 집 마련은 꿈이 아닌 신기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인간이 만들지도 않은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조지: 좋은 질문입니다. 토지 사유권의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소유권의 근원부터 물어야 합니다. 개인이 땀 흘려 만든 물건이나 성과를 그 사람이 소유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인류 모두가 평등하게 사용하라고 내어준 공동의 자산입니다. 특정 개인이 이 공동 자산을 독점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은 마치 공기를 독점해 팔겠다는 것과 같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는 것도 집주인의 특별한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인구의 증가, 교통망의 확충, 도시 기반 시설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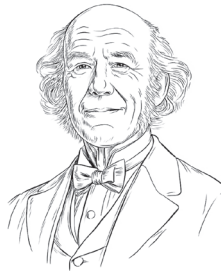
국가 경제성장처럼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든 요인들 덕분입니다. 마땅히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특정 소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페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토지는 우리 세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인류 공동의 유산입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 토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원천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토지 사유제가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혁명적인 방식보다는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토지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을 모든 시민에게 '시민 배당(기본소득)'의 형태로 공정하게 분배한다면 토지 사유로 인한 불평등을 바로잡고 모든 사람이 공동 유산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스펜서: 두 분의 이상적인 주장은 잘 들었습니다만, 현실을 너무 외면하고 계십니다. 사회는 경쟁과 적응을 통해 진화하는 유기체

와 같습니다. 토지 소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능한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은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것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물론, 소수의 독점이 지나쳐 다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최소한의 사회적 제어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 자체를 부정하고 그 이익을 인위적으로 재분배하려는 시도는 개인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엔진을 꺼뜨리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2. 불로소득과 공평한 세금

아고라: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그 해결책으로 세금 문제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특히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조지 선생님께서는 모든 세금을 토지세 하나로 통합하는 단일세를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조지: 물론입니다. 단일세는 가장 정의롭고 효율적인 조세제도입

니다. 토지 가치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든 부입니다. 따라서 그 가치에서 비롯된 지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마땅히 사회의 몫을 되찾는 정당한 과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국가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세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노동소득세나 법인세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여 생산 의욕을 꺾지만, 토지세는 생산 활동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지를 놀려두면 손해이므로, 소유주가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투기를 억제하고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한국에서도 집값과 땅값이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토지세율이 지나치게 낮고, 각종 예외 규정과 특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토지세만으로도 불로소득을 줄이고 투기를 막을 수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일세는 단순한 조세제도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페인: 조지 선생님의 주장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다만 저는 모든 세금을 토지세 하나로 대체하는 것에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사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고, 토지세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하고, 개인의 땀과 노력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토지세와 상속세는 정당한 세금입니다. 토지는 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상속 재산 역시 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벌어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동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개인의 노력에 일종의 벌금을 매기는 셈이라 불공정합니다.

저는 토지세와 함께 상속세를 강화하고, 이렇게 모은 재원을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정의로운 방안이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은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가난 때문에 생존을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고, 사람들은 생계 압박에서 벗어나 교육, 창업, 문화 활동 등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영역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스펜서: 두 분 모두 불평등을 인위적인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지 소유권이 본래 공동의 것이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를 세금으로 억지로 바로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경쟁의 활력

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세가 투자를 막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세를 유일한 세원으로 삼는다는 발상은 국가 재정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다양한 세원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로소득이라는 개념도 위험합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위험을 감수한 대가까지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과세를 한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조지: 스펜서 선생님, 지금 이 순간에도 땅값 폭등으로 인해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방치할 문제입니까? 토지세를 제대로 걷는 것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불로소득이라는 불의를 바로잡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사회정의의 실현입니다.

페인: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사회가 공동으로 창출한 가치는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토지세 강화와 기본소득은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고라: 선생님들의 토론을 듣다보니, 떠오르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Thomas Piketty)는 자신의 책 『21세기 자본』에서 놀라운 현실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바로 ‘자본 수익률(r)이 경제 성장률(g)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으로 버는 돈보다 이미 가진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부는 점점 소수에게 집중되고, 특히 상속받은 부가 대를 이어 축적되면서 세습 자본주의가 굳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현실은 경제 정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3.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

아고라: 인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도시에 빈민, 청년 실업, 주거 불평등 같은 문제들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조지: 바로 그 질문이 제가 평생을 바쳐 탐구한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보의 성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독점되기 때문

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부유해지면 그에 따라 토지의 가치, 즉 땅값과 임대료가 폭등합니다. 결국 노동자는 임금이 올라도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느라 실질적인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진보의 혜택이 일하지 않는 지주(地主)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 이것이 바로 진보 속의 빈곤이라는 모순의 핵심입니다. 서울이나 뉴욕의 집값을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세나 대출 이자를 내다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이지요.

페인: 조지 선생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여기에 조세 정의라는 관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개인이 노동과 노력으로 만든 것은 그 사람의 것이지만, 토지와 같이 사회 전체가 만든 가치는 사회가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세와 상속세가 정당한 세금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모은 재원을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공동의 자원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받는다라는 신호입니다. 가난 때문에 아이가 교육을 포기하거나, 청년이 꿈을 접는 일이 줄어들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기본소득은 소비를 늘려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

고, 불평등이 완화되면서 공동체의 결속도 강해집니다.

스펜서: 두 분께서는 사회를 너무 기계적으로 보시는군요. 사회는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사회가 진보하면서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에서 생명체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생존하듯이, 사회도 경쟁을 통해 더 강한 집단과 개인이 앞서 나가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생존입니다. 물론 그것이 불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경쟁이 사회 전체의 힘을 키워온 것도 사실입니다.

진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역시 사회가 더 강해지기 위해 겪는 성장통과 같습니다. 이를 세금이나 인위적인 재분배로 억지로 바로잡으려 한다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키는 경쟁의 동력을 꺼뜨리게 될 것입니다. 빈곤의 해결은 단일세나 기본소득 같은 강제적인 제도 개혁이 아니라, 개개인이 교육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도덕적으로 성장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나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조지: 스펜서 선생님의 말씀은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토지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

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불평등은 결코 자연스럽게 완화되지 않습니다.

페인: 맞습니다. 저도 자유와 경쟁을 존중하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이 없는 경쟁은 폭력에 가깝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본소득은 동정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공동의 자원에서 자기 몫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쟁에 참여할 최소한의 자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회균등입니다.

4. 기본소득과 시민 권리

아고라: 오늘 토론에서 페인 선생님이 그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기본소득이 최근 세계 곳곳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조지: 저는 기본소득의 발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서 생긴 가치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세로 이를 환수하고, 그 재원을 모든 시

민에게 나누어 준다면, 최소한의 생활은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다면 청년들이 집세 걱정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노동자들도 생계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로 착취당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스펜서: 저는 기본소득에 회의적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의존적인 태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과도한 세금을 걷는다면, 결국 사회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줄어들 위험도 있습니다. 사회 발전은 개인의 자율과 노력, 그리고 경쟁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국가의 보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 스펜서 선생님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소득이 오히려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때, 비로소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창업이나 자기 계발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패했을 때 바로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지요. 기본소득은 그런 불안을 줄여주어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사회를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페인: 맞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자유를 위한 토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굶주린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보장될 때만이 인간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니라 민주사회의 필수조건입니다.

스펜서: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도가 인간의 도덕적 성장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제도뿐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교육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고라: 의견이 팽팽하네요. 조지 선생님과 페인 선생님은 기본소득이 정의와 자유, 그리고 사회적 안정의 기초라고 강조하시고, 스펜서 선생님은 개인의 자율성과 경쟁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청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일까요, 아니면 조심해야 할 유혹일까요?

5. 자유무역과 토지 공유 vs 보호무역과 국가 우선주의

아고라: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조지 선생님은 자유무역과 토지 공유가 결합해야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셨는데,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폭탄을 무기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세계 각국에 강요했습니다.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으로 돌아간 이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연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어떤 길이 우리 사회와 세계의 미래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조지: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잘못됐습니다. 겉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더 비싼 물건을 강요하고 소수의 자본가들만 이익을 챙길 겁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활력을 떨어뜨리는 길이지요. 무역은 개방되어야 합니다. 대신 국가는 부동산 불로소득세나 초과이익세 같은 건전한 세금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은 재원으로는 누적된 재정 적자를 줄이고, 동시에 미래 산업과 새로운 기술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라의 활력을 살리고,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페인: 저도 자유무역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역만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사회가 저절로 정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핵심은 세금이 공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세나 부가가치세처럼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세금이 아니라, 토지세와 상속세처럼 불로소득을 겨냥한 세금이야말로 정당합니다. 그렇게 걷은 재원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이른바 관세폭탄 정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또 이민자를 배척하는 정책으로 사회의 갈등과 차별을 키웠습니다. 그 사이 거대 기업과 상위 계층은 더 많은 부를 독점하고, 다수의 시민은 학자금 대출과 의료비, 불안정한 일자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미국의 재정적자 역시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부담이 함께 커진 것이지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무역정책의 변화가 아닙니다. 미국 사회 내부의 제도 자체를 다시 공정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누구나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고, 토지나 상속 같은 불로소득이 일부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스펜서: 국제 경쟁 속에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매우 과격한 방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국민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지키려는 정치적·경제적 본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인위적 보호가 오히려 사회의 적응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지나친 보호무역은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기회를 빼앗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언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개인과 기업이 세계 시장의 경쟁 속에서 자율적으로 적응하고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자생존의 원리야말로 사회를 진보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조지: 스펜서 선생님, 경쟁을 강조하시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경쟁은 이미 출발선이 기울어진 불공정한 경쟁입니다. 자본가들은 더 이상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과 부동산 같은 자산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해도 집세와 대출 이자, 교육비와 의료비에 짓눌려 미래를 걱정해야 합니다.

미국 사회를 보십시오. 대기업과 월가의 금융자본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리는데, 일반 시민들은 치솟는 집값과 학자금 대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생활이 점점 더 팍팍해집니다. 이런 불평등을 가려보겠다고 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관세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물가 부담을 안기고, 국제 무역 질서를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문제의 뿌리는 소수 계층이 불로소득을 독점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이나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면, 아무리 경쟁을 외쳐도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불로소득을 공정한 세금으로 환수하고, 그것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무역을 소수 자본가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진정한 의미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스펜서: 저는 자유무역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쟁 속에서 강한 나라와 강한 개인이 앞서가고, 약한 쪽은 뒤처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생태계에서 강한 종이 살아남듯이, 경제와 사회에서도 경쟁은 진보와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나친 불평등이 사회 전체의 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경쟁의 기본 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경쟁의 활력을 꺾는다면, 오히려 사회 전체가 퇴보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사회가 무너질 만큼 불균형하지 않도록 균형을 찾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아고라: 정말 마지막까지 토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아마도 청중께서 이 열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의 열기를 식히는 마음으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지 선생님과 페인 선생님은 정의로운 과세의 방향을, 스펜서 선생님은 자유경쟁의 원리를 강조하셨지만,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트럼프식 보호무역이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비슷하시네요.

토지 소유의 정당성부터 최근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룬 오늘 토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와 직결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수의 독점인가, 모두의 공유인가.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중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며 오늘의 ‘지혜의 광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토지 정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토지 소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① 토지는 사회가 만든 가치이므로, 불로소득은 토지세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 - 조지형
- ② 토지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반이므로,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페인형
- ③ 토지 소유는 자유와 책임의 원리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회 전체의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가 필요하다. - 스펜서형